

3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2006

가정예배

예레미야애가 · 에스겔

데살로니가후서 · 디모데전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3

2006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예레미야애가 · 에스겔

데살로니가후서 · 디모데전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 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 ②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릴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 ③ 2006년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하소서.
- ④ 1·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 ⑥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 ⑦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 ⑧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지금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때가 아닙니다.

사순절의 기간이 계속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살피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 뿐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와 그분이 하신 말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주님은 만물 위에 계십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그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면 자신을 낮추고 한 마리의 양이 되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만이 은총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실 것입니다.

매일 성경묵상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5:39)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 비참하게 밟힌 예루살렘 성으로 인해 애통하였습니다.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을 조롱함을 인하여 슬퍼하는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공의로 판단하셨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응받음같이 그 대적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현재 예루살렘에 닥친 파멸의 참담함을 고통스럽게 지켜보면서 느끼는 아픔과 민족적 회개를 기대하는 열망을 시적 형태로 애절하게 표현했습니다. 본 장에는 유다의 실존적 상황을 탄식조로 묘사하고 있으며, 본서 전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 장은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북받치는 슬픔을 느끼고 있는 전반부(1-11절)와 예루살렘 성을 의인화시켜 슬픔을 노래하는 후반부(12-2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파괴된 사실에 대해 심각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 충실하도록 먼저 힘쓰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에 있는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품안으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양적 확대를 위한 근시안적인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버려진 영혼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에 번뇌하오니 나의 패역이 심히 큼이니이다"(애 1:20)

기도 제목 ①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소서. ②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시적인 형태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외형적으로는 바벨론의 군사적 침략으로 드러났지만, 진정한 원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장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매정하리만큼 철저함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러한 본 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묘사하는 전반부(1-12절)와 예루살렘의 탄원을 묘사하고 있는 후반부(13-2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이듯이 모든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징벌과 멸망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그때에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징계를 풀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는 세상 백성들보다 더욱 수치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사랑을 받은 만큼 더욱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요구됩니다. 성도들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있을 때에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해야 됩니다.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찌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찌어다”(애 2:18)

기도 제목 ① 고난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② 각 구역에서 드러질 구역예배를 온전히 준비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서는 당시 빌립보 교회를 영적, 도덕적으로 혼란케 하던 반(反) 복음주의적 경향을 가진 유대주의자들의 교훈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의 교훈이 잘못 되었음을 경고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순전한 신앙 생활에 힘쓸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은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을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자신도 육체를 신뢰했던 율법주의적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었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핵심 원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형식적인 예배, 봉사, 헌신이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잘못 생각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전통, 관습, 가치관 등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그 어떠한 다른 길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행 4:12).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울수록 자신의 최후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아는 사단이 어떻게든 성도들을 실족케 하며,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려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는 가운데,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며,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복음의 진리를 혼잡케 하려 하는 자들에게 미혹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애 3:22)

기도 제목 ①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날까지 복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멸망의 참상 중에서도 특히 극심한 기근으로 인한 고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참한지 자비한 부인이 자기 자녀를 양식으로 삼을 만큼의 비참함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처녀 내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10절). 이 정도면 기근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탐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3절). 종교지도자란 곧 선지자,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면 바로 잡아주어야 할 그들이 타락하니 오히려 백성들을 더욱 영적으로 곤핍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백성들도 타락했습니다. 우상 섬기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다는 세상의 흐름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11-16절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방인들의 침입으로 함락되고, 파괴되는 등의 운명을 맞게 된 그 일차적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에게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국가로 삼았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하여 만방에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전달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이 요구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의 방법을 의지해 스스로의 힘으로 출세하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뿐만 아니라 냉엄한 심판이 이르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라므로 우리 눈이 상함이어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애 4:17)

기도 제목 ① 실패한 자들의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②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이 성령의 지혜로 학생들을 대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 직접 호소하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1-18절은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에 처한 선민의 호소와 회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예레미야는 전 유다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처한 자로서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러한 고통에 처하게 된 근본 원인이 자신들의 범죄에 있음을 자복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19-22절은 예레미야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에 대한 신실함에 근거하여 선민의 조속한 회복을 비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유다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개된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이 당연하고도 공의로운 하나님의 보응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범죄한 백성까지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확신은 단지 조국을 아끼는 애국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구속사적 섭리를 통찰하고, 그러한 지식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선민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자못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본서를 통해 단순히 예루살렘의 패망과 그 비극적 참상을 묘사하여 죄 범한 자의 비참한 최후만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전 구속사 위에서 절대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계기로 승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쳐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 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애 5:21)

기도 제목 ① 진실로 회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②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넘치는 주일 예배와 모임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의 내용을 통해 에스겔은 최초의 이상을 본 때가 여호야킨왕이 사로잡힌 지 제5년 4월 5일로 밝히고 있습니다. 즉 B.C. 593년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이상을 본 '제27년 정월 초 일일' 즉 B.C. 571년까지 22년간 선지자 활동을 하였고 또한 이 시기에 본서를 기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서의 1-3장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선지자로 부름받은 소명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과 네 바퀴, 보좌의 이상에 대한 이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이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의 수여자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하는 신비로운 이상을 보여주시므로, 앞으로 주어질 예언들이 신적 권위를 가진 정확한 것임을 서론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본서의 권위 확보라는 측면에 있어서 뿐아니라 구속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을 보여준다는 사실에 보다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회복은 선지자로 하여금 민족의 비극적 최후를 목격하면서도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종말론적 승리와 완성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점점 세속화되어 가는 시대 속에서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를 확신하는 신앙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현재의 어떤 고난과 위협에서도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겔 1:28)

기도 제목 ① 현실의 어려움을 육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소서. ② 2006년도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가 없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에스겔이 선지자의 소명을 받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먼저 1-17절은 선지자 소명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유다 백성들의 완악하고 강박한 심령 상태를 지적하시면서도 선지자로서 소명 수행에 어려움과 위험이 따르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어려운 환경에 둘러싸인 에스겔을 향해 하나님은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주심과 동시에 위로와 격려도 잊지 않으십니다. 정녕 하나님은 택한 사역자에게 사명을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아울러 주시는 자상하고, 세심하며, 사려가 깊은 분이심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든 배척하든 선지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모든 결과는 오직 하나님 편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백성들의 반응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실제로 선지자들은 여호와와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오직 담대함을 소유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가 성도들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찌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찌어다”(겔 2:6)

기도 제목 ① 세상에 영향 받지 말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②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더욱 기도하며 사역을 감당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하나님께서서는 죄악의 늪에 빠져 멸망으로 치닫는 예루살렘 백성을 위해 파수꾼을 보내셨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함락 전에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소명의 방법은 이상을 통해서였고, 소명의 장소는 포로된 땅 바벨론의 그밭 강가였습니다(겔 1:1-3). 이상 중에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말씀만을 전하라는 뜻으로, 에스겔에게 먼저 두루마리 책을 먹게 하셨습니다(1-3절). 이어서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대상인 유다 백성들이 참으로 완고하고 패역한 족속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4-1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파수꾼의 책임을 다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파수꾼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진실을 바로 살피는 일입니다(22-27절). 그럼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즉 만일 주께로부터 말씀이 없으면, 파수꾼은 언제까지나 침묵해야 합니다. 그다음은 진실을, 그대로 가감 없이 알려서 열심히 깨우치는 일입니다(16-21절).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늘날 주님의 일꾼으로서 이 시대의 파수꾼 된 성도들은 복음을 올바르게 깨달아,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딤후 4:2, 고전 1:18).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겔 3:17)

기도 제목 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게 하소서. ②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선지자 에스겔은 상징적 행동을 많이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징적 행동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 이유는, 먼저 백성들의 관심을 끈 다음 그러한 행동의 의미를 생생하게 시청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이것은 정상적인 메시지 전달 방법으로는 도무지 먹혀들지 않을 만큼, 당시 유다 백성들의 심령이 완악하고 강박해진 상태임을 반증합니다.

에스겔은 바로 이 같은 바벨론 땅의 백성을 향해, 그리고 멀리 유다 땅에 있는 동족을 향해, 하나님의 명을 좇아 네 가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예루살렘과 그곳 백성들 위에 임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의 상징적 행동은 단순히 2500여년 전에 있었던 한 선지자의 기이한 행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오는 세대를 향한 상징적 행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상징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오늘날 나의 신앙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악의 대가는 실로 쓰라린 것으로서, 곧 ① 대적에게 사로잡힘을 당하고, ② 죄악의 강도만큼, 비례하여 환난의 고통이 찾아들며, ③ 영육 간에 극심한 기근과 피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죄악을 삼가 두려워 합시다.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죄와 싸워 이깁시다 (히 12:4).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네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찌니라”(겔 4:4)

기도 제목 ①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신 주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소서. ② 모든 교역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루살렘이 큰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은 그 속에 죄악이 흘러 넘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받은 영광스러운 제사장 나라로서(출 19:5,6),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빛이 되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율법 없는 이방인들보다 더 크고 가증하고 악한 죄악을 자행했습니다(5-7절). 그러고도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멸시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선 철저한 징벌의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8-17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은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날입니다. 그 엄위하신 공의의 심판 앞에 더 이상 악인이 설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유다와 예루살렘 곧 선민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능욕거리와 조소거리와 멸시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14,15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심판의 와중에도 이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3,4절).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열방에 대한 심판과는 달라서, 그것은 완전한 소멸을 위한 파괴적인 심판이 아니라, 그 백성을 징계하는 가운데 더러운 찌꺼기를 제거하는 연단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호 11:8).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회개하는 심령으로 실족하지 말고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믿고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오기 바랍니다.

“네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 후무하게 네게 내릴찌라”(겔 5:9)

기도 제목 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라 일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1-14절).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근심케 했다고 했습니다(9절). 여호와^의 질투는 택한 백성을 향한 또 다른 의미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 백성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택한 백성을 향한 사랑이 큰 만큼, 하나님의 심판 역시 크고 철저했습니다. 둘째로 여호와^{만이} 홀로 참 신이십니다(1-14절).

에스겔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했습니다(3-6, 13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상이 ‘헛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nothing)임을 입증합니다. 제 몸 하나도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는 한낱 나무덩어리요 돌덩이임을 의미합니다(렐 10:3-5). 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뿐임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부지런히 우상을 섬겼지만, 심판의 날에 우상에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우상과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더 섬기고 위하는 나의 우상은 없습니까? 혹시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 등을 더 섬기니까? 그것들이 심판의 날에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겔 6:10)

기도 제목 ① 우리의 마음에 허탄한 우상을 깨뜨려 주시고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② 전 성도들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새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에스겔은 뜨거운 동족애로서 애타게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끝났도다”(2절), “때가 이르렀고”(12절)라고 말한 만큼 심판의 날은 가까왔고 임박했습니다. “끝났도다”라는 메시지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고로 “어서 속히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회개의 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을 그때에 회개해야 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속히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고후 6:2).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세상 재물을 의뢰했습니다. 세상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겼습니다(20절). 하지만 심판의 날에, 그것들은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우상은 여지 없이 깨어졌고(겔 6:6), 세상 재물은 쓰레기처럼 거리에 버려워졌고(19절), 바벨론 군대에 의해 노략당하고 약탈당했습니다(21절). 재물을 우상 삼는 자는 결국 그것으로써 큰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권세(애굽)를 의지하여 환난 날을 모면하고자 하였습니다(23-27절). 유다 백성은 애굽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급기야 비참한 멸망의 날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총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진실로 회개합시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참 피난처이신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찌어다 임박하도다”(겔 7:6)

기도 제목 ① 오직 참 피난처요 산성이신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게 하소서.
② 22개 교회학교에서 드러질 예배를 통해서 학생들이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 곧 그의 나이 30세 되던 때 처음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입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겔 1장). 그 일이 있은 후 만 14개월 뒤에 그는 다시 환상을 체험하게 됩니다(1절). 제2차로 보여진 환상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전에서 자행되는 것까지 가증스럽고 부패한 악행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인 장로들의 짐승 숭배에 대해 고발합니다(5-12절). 이는 특정 집단이라고 할 것도 없이 제사장들의 주도 하에 모든 유다 남녀가 가증스런 태양신과 담무스 신을 섬김으로 인한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 보지 아니하고 궁핍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찌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17,18절).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떠나게 할 뿐입니다(6절). 하나님께서 떠난 그곳은 다만 온갖 죄악이 자행되는 도적의 소굴일 뿐입니다. 따라서 성전의 성전됨, 곧 교회의 교회 됨은 외양적인 건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교회의 표지는 한 마디로 교회가 교회답게 거룩하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곧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곳에 혹 우상은 없습니까? 가증하고 음란하고 허탄한 것들이 그곳에 자리잡고 있다면 지금 회개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찌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겔 8:18)

기도 제목 ① 우리 마음의 가증하고 허탄한 것들을 제하고 십자가 보혈로 정케 하소서. ②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문은 에스겔이 본 두 번째 환상(겔 8:1-11:25)중 하나로, 하나님의 명을 좇아 천사들이 타락한 예루살렘 거민들에 대해 살육의 대심판을 집행하고 있는 환상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의 거민들은 그들의 가증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받아,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인 바벨론 군대에 의해 무참하게 살육당했습니다(겔 7:10,11). 불행하게도 본문의 환상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B.C. 585년경).

우리는 본문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 원리'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원리를 따라 심판하십니다. 죄악의 도수가 찰 때까지 오래도록 기다리십니다(1-11절). 하나님께서 한 성읍과 나라를 심판하실 때, 그 이유는 바로 '죄악'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악이 조금 보인다고 하여 금방 심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그가 죄악 가운데서 그대로 멸망하는 것을 조금도 원치 아니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겔 18:23). 심판보다는 구원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해 오래도록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같은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면서 끝까지 회개치 않고, 관영한 죄악의 도수를 채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십니다(5-10절). 악인이 그 맹렬한 불 같은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고도 완벽한 심판을 통해 죄악과 불법의 피로 더럽혀진 땅을 정결케 하십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삼가 두려워 하는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회개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삶을 이어가야 하겠습니까.

"긍휼을 베푸시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니라"(겔 9:10)

-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② 모든 전도회가 전도하는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에스겔 선지자의 주 관심사는 하나님을 떠나 헛된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악을 일삼는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일련의 환상들을 통해 유다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죄악상을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8-11장). 그런데 이 환상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18절).

이어서 본 장에서는 숯불의 이상을 통해 음란하고 타락한 성읍 소돔과 고모리와 같이 온 유다를 불바다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선포 하였습니다(1-8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을 타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통해 유다 백성과의 관계를 잠시 단절하시겠다는 뜻도 피력하십니다(9-22절). 진실로 하나님은 십자가와 바른 관계를 가지지 않고, 당신의 뜻을 무시하는 인생들과는 결단코 함께 거하지 않으십니다. 정녕 그렇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는 허물과 죄를 청산하는 진정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아끼며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부패마저도 용인하시고 방치해 두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공의와 진리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즐거워하십니다(눅 15:11-24).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청산하는 참회의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참회개하는 자에게만 십자가의 은총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겔 10:18)

기도 제목 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②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총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서는 악을 행하고 있는 교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절망중에 있는 자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거민들은 자기들은 행운아요,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 받아 거룩한 땅에서 뽑혀 버린 자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로된 자들은 멀리 떠났으며 그들이 남겨 놓은 땅은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포로들을 돌보는 피난처가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남아서 재앙과 사로잡힘을 면한 자들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과 연대 책임을 느끼며 애통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는 정반대의 시각을 공포함으로써 회개하며 돌이킬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성전이 되심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구속하셨으며, 파괴된 성전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셨다는 사실은 지상의 유형적인 성전의 제한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 만이 참된 성전임을 상징해 줍니다. “성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계 21:22).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성전에 비유하여 말씀하셨고, 이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영접하는 자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전 6:17)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교회주변전도를 통해서 만나는 영혼에게 은총의 복음이 온전히 새겨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서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거짓된 낙관주의에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본장에서 일련의 징조와 메시지를 통해 예루살렘의 멸망을 강조하며, 그릇된 희망을 포기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 장은 에스겔이 자신의 행구를 옮김으로써 이스라엘 족속의 패주를 예언하고, 먹고 마시고 떠는 행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기근과 궁핍을 미리 알려 주는 선지자의 두 가지 상징적 행위를 기술한 부분과(1-20절), 심판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두 가지 메시지를 소개하는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21-28절).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심판의 필연성과 당위성 그리고 임박성을 여러 예언과 환상을 통해 선포해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이것의 잘못됨을 논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며 또 조만간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함으로써 그들이 틀렸음을 강조합니다.

패역한 무리들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오래 참으심을 조롱하였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롬 2:4). 그리고 더 나아가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벧후 3:4)라면서 주의 강림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들이 슬피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가까왔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사옵소서”(계 22:20)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게 하소서. ②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선포하는 메시지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과 심판을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자의적이고 거짓된 메시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릇된 소망을 심어줌으로써 멸망케 하는 죄악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에스겔은 거짓 선지자들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그들의 죄악을 각각 지적하고 그 죄악에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은 “자기 마음에서 나는데로 예언하는 자”(2절),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3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와는 상관이 없이 말하는 자 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그들의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메시지의 뿌리는 ‘거짓’이며 그들과 관계된 것들 모두는 ‘거짓된 것’ 일 수밖에 없습니다(1-7절).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회 칠한 담벽에 기대는 것과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죄악이 가득 찬 상황에서 참으로 필요한 회개의 메시지는 전하지 않고 언제나 풍요와 번영만을 말합니다. 듣는 자들이 원하는 것이기에, 거짓 선지자들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대중의 호의적인 반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라면 자신이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겸손히 듣고 따르려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 그 날이 닳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눅 21:34)

기도 제목 ① 깨어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상반기 교육훈련원의 모든 훈련이 은혜가운데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에스겔은 본 장에서 우상을 섬기는 장로들에 대한 책임과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회개의 권면을 기록하면서 심판의 불가피성과 남은 자의 구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 장은 이전과 같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 장로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과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좀더 탁월한 신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참되며, 유일한 신이며, 나머지는 헛된 우상입니다. 따라서 헛된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오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간직한 우상이 없는가 돌아보고 제거해야 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사 59:2). 자신의 마음과 삶 속에서 우상과 죄악을 끊겠다는 의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며 어떠한 것이든 기꺼이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가장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순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유 21)

기도 제목 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케 하소서. ②충현의 젊은이들이 오직 주님의 뜻에만 순종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서는 쓸데없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불가피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세상 나라들 가운데서 그 자체의 조건이나 자질로써는 전혀 나을 것이 없는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조건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유용하고 주목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존재로서 올창하고 멋진 삼림 가운데서 한낱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 된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풍성한 열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포도나무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모든 세상에 대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었던 이 포도나무 비유는 오늘날의 교회에 적용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믿는 자들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믿는 자들이 맺을 열매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하게 살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이웃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요 15:4,5),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요 1:14).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엡 5:9)

기도 제목 ①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에스겔은 예루살렘을 ‘음란한 부녀’에 비유함으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부녀’의 비유를 통하여 심판을 선포하는 목적은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2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수도 예루살렘이지만 이차적으로는 택함을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먼저 음란한 부녀로 비유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기 전의 비참했던 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된 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참한 출생은 본문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믿는 자들도 본래 사단의 종된 자들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택함 받은 자는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택하신 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직 그 뜻에 따를 뿐입니다. 그렇지 않고 택하신 분, 즉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한 마음으로 우상을 따른다면 그는 택함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은혜를 거스리는 더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지음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엡 4:22-24).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기도 제목 ① 늘 깨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② 모든 선교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패망을 자초한 이스라엘의 말기 상황을 두 독수리 비유로 묘사하는 전반부(1-10절)와 비유에 대한 설명으로 시드기아가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음을 정죄하는 중반부(11-21절), 그리고 전반부와 동일한 비유를 사용하여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전하는 후반부(22-24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B.C. 59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여호야긴 대신에 유다 왕위에 오른 시드기아는 처음에는 바벨론에게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후 하나님의 선지자의 충고를 무시하고 친애굽 정책으로 애굽에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왕하 24:21). 이것은 유다가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것이고, 애굽을 의지하여 독립을 모색한 행동이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아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벨론을 배반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거짓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고, 바벨론의 땅에는 얼마 못가서 꺾이고 말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렘 28:1-12). 그들은 평안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렘 7:4). 시드기아는 이같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예언에 미혹된 것입니다. 시드기아는 믿음에서 떠난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그것은 나라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고후 11:3)

기도 제목 ① 항상 깨어 복음을 증거하며 자랑하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청지기와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인간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특별히 강조되어 있는 본 장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믿음을 보여 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칭찬을 비롯해 성도들을 핍박하는 대적들에 대한 심판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문안 인사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이 증가되었다는 기쁜 소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써 본 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입증될 때에 그들을 핍박한 자들은 환난을 받게 되고, 핍박을 당한 그들에게는 안식이 주어질 것임을 역설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북돋우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 주었던 믿음과 사랑은 모든 성도들에게 강조되는 것입니다(2,3절).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됩니다(요일 4:20,21). 핍박받는 가운데 요구되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형벌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핍박받는 성도들은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히 10:30)을 알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여야 합니다(살전 5:15). 그뿐 아니라 더 적극적인 태도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벧전 3:9).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 12:21)

기도 제목 ① 원수를 사랑하는 믿음을 주소서. ②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단과 그 세력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단과 그 세력들에게는 주님의 심판이 임하겠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멸망치 않고 반드시 구원 얻을 존재임을 말씀해 주십니다(13,14절). 우리가 구원 얻을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후에 자신의 선택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돌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선택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갈 4:6). 이처럼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성도들로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나가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② 2006년도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규모 없이 행하고, 자신이 전해 준 교훈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며 질책하고 있습니다(6절). 규모 없는 자들이란 그릇된 재림관과 임박한 종말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인해 불성실하며 무위도식하는 무질서한 생활을 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왔으니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이것을 주장합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규모 없이 행하여 일만 만드는 자들에 대하여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는 아주 심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면서 교회에 문제만 일으키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의 특징입니다(딤후 5:13). 망령된 편론을 통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규모 없는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규모 있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십자가 복음에 굳게 서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사랑의 삶이 아닙니다. 사랑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골 3:17)

기도 제목 ①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소서. ②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사도 바울은 본 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증거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 2b절).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 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할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행 4:12). 따라서 구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람이 복음의 일꾼으로 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영광의 소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골 1:27).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산 소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벧전 1:3).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우리는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하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몸과 마음으로 찬양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골 1:27)

기도 제목 ①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종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사람에게 있는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에 들어 온 것입니다. 죄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4,5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며(빌 2:6), 하나님과 하나이시며(요 10:30),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계 3:14).

세계의 많은 종교들은 구원과 관련된 교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구속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로 올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는 수없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구주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죄 아래 있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중보자이시며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

기도 제목 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②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에게 가기를 바라나 만일 지체되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15,16절).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또한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석으로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리로 증거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요 1:14)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벧전 3:18)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롬 1:4)은 이성으로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의 빛 안에서 믿을 수 있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마 16:24).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자신을 부인할 때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은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빛 안에서 믿음으로 경건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요 14:6)

기도 제목 ①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의 빛 아래서 믿어 그 분만을 증거하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교구가 오직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풍성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다가올 배교에 대해 경고하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경고를 교회 내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감당해야 할 일들 중의 하나로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합니다(7,8절).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위해서는 망령된 일을 버려야 합니다. 이 망령된 일을 버리기 위해서는 거짓 교훈들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 교훈들은 세상과 초등학문을 좇게 하는 것입니다(골 2:8). 거짓 교훈들은 허망한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엡 4:17). 결국 거짓된 교훈들은 망령된 생활로 인도하고 중국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망령된 일을 버리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연습은 외식적인 연습이 아닙니다. 이 연습은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복음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진실한 마음으로 들을 때 우리는 진정한 경건에 이르게 됩니다.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런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 약속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눅 18:13)

기도 제목 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겸손히 맡겨진 일을 감당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사도 바울은 장로에 대하여 교회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말씀하면서 인간의 죄악이 밝히 드러날 것과 그 죄로 인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24,25절). 어떤 사람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 전에 드러나고, 또 어떤 사람들의 죄는 재판중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모든 죄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숨겨진 죄악은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악이 선으로 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가면은 벗겨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드러나기 마련인데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심판이 뒤따르게 됩니다(마 12:36, 전 12:14). 어떤 죄를 막론하고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먼저 드러나는 죄든, 가리워졌다가 뒤에 알려지는 죄든, 은폐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죄인은 모두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심판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인된 자리에 서서 우리의 은밀한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롬 2:16). 이 날에 우리가 죄악의 수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와 통회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매일 계속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숨기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악을 고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가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전 12:14)

기도 제목 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음을 믿고 겸손하게 주님을 좇아가게 하소서. ② 모든 찬양대원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사도 바울은 부를 추구하는 자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열거합니다. 이는 부한 자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9절). 부하려는 자들이란 인류 공존의 법칙을 무시하며 이 윗에 대한 착취와 불의를 그들의 삶의 근간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물질에 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은 곧 돈이 되어 신앙을 잃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재물 축적의 수단과 기회로 삼아 물질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약 5:1,6). 해로운 정욕에 빠져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부는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삼아 그분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마 16:24). 우리 인생의 안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어야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입은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며,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입니다. 자신이 처한 불행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웃입고 …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롬 13:14)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② 금요집회시 선포될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구역예배공과

3월 구역 공과 초점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살피라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살피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지금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깊이 묵상하여 자신을 온전히 살피야 합니다. 아마도 사순절의 기간이 진행될수록 사단의 시험은 더욱 거세게 우리를 몰아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말씀에 순종하여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영안을 열어 더욱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해지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진실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3월 구역 공과 개요

금요모임	본 문	제 목	초 점
0303	눅 4:1,2	시험받으신 예수님	말씀으로 사단과 싸워 승리하라
0310	마 17:5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0317	요 4:13,14	생 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
0324	요 9:39-41	두 가지 중요한 핵심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라
0331	요 11:41-44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1. 구역 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공과.....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공과전개

도 입

전 개

적 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소요시간 10분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1과 시험받으신 예수님

| 초 점 |

말씀으로 사단과 싸워 승리하라

| 찬 송 |

찬송가 389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찬송가 284장 주 예수 해변서

| 본 문 | 누가복음 4:1,2

①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
서 사십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②마귀에게 시험을 받으
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하매 주리신지라

마음으로 路

오늘은 사순절의 첫째 주일로 시험주일 혹은 광야주일이라고도 불리는 날입니다. 누가복음 4:1-13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십 주야 곧 사순절과 동일한 기간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받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눅 4:2

※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시험에 대해서 나누어 보세요.

예수님의 시험은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광야에서 있었는데, 이는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받았던 시험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받으신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 이야기는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아주 실제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세 가지 욕심

인간은 날 때부터 자유의지와 자존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요일 2:16

이 세 가지의 유혹은 인간의 첫 번째 시험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들은 인간이 그 유혹을 이겨내는 데 실패한 이후에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욕심들은 인간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패시킵니다.

세 가지 욕심 / 의 정욕, 의 정욕, 의 자랑
세 가지 욕심은 인간을 지배하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마귀는 동일한 이 세 가지의 유혹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승리의 원동력은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지혜나 경험으로 마귀를 제압하지 않았습니다.

딤후 3:16,17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은 인간에게 내려진 그 어떤 저주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에는 인간을 이겼지만 메시아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똑같은 세 가지 것으로 유혹했지만 말입니다.

사단의 속임수

사단은 아담과 이브를 속였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속여서 삼키려고 돌아다닙니다.

벧전 58

여러분은 문제가 생길 때 에덴동산에서 일어났던 유혹과 그 무시무시한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십니까? 자신이 아담과 이브보다 얼마나 더 악한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단지 금지된 열매를 한 입 베어 먹었을 따름입니다! 두 말할 필요 없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단에 대해 전혀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 하지 않습니다.

사단과 귀신들의 일을 써 보세요 (설교문 참조)

날마다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끔찍한 일들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영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사단이 적을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단의 꾀계에 대해서 명확히 분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주님 곁에는 한 사람의 제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사단의 속임수를 알아챌 것이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이해와 경험을 의지했고 인간적인 것을 생각했습니다.

딤후 5:15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말해줍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혜나 지식, 또는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약 1:27 /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만약 계속해서 정욕과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路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지금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때가 아닙니다. 사순절의 기간이 계속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살피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십시오. 마귀의 권세가 너무나 강력해서 예수님의 도움없이 결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요일 54,5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시인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이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2.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소서.
3. 매일 자신을 살피서 온전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2과 저의 말을 들으라

| 초 점 |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 찬 송 |

찬송가 252장 기쁜 소리 들리니

찬송가 257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 본 문 | 마태복음 17:5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마음으로 路

날마다 우리는 수많은 말들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어떤 말들은 선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로 이끕니다. 그러나 어떤 말들은 악하여 우리를 지옥으로 가는 넓은 길로 끌고 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듣는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세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 앞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영광스런 몸을 입은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 17:5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이 나 교회 친구들과 같이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조연자 명단의 맨 처음에 있어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양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간 사 람의 이야기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눅 15:7 /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하면 하늘에서 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눅 15:10 /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하면 하나님 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 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유하거나 아름답거나 유명한 사람들을 찾습 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보다 TV나 인터넷, 신문을 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의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해 줍니다.

요 5:24

요 3:16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해하십니까? 이것은 문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엡 2:1).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시간을 내어 4복음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엡 4:18 /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생깁니다. 신앙의 위험신호는 성도들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신봉할 때 켜집니다.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좋은 책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성경을 읽는다면 결코 그 내용을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요 5:39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전혀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마음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영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이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요 10:26,27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스스로를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좀 더 고귀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겸손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런 비천한 자리에 내려놓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들의 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십자가로 路

하늘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꼭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요 14:6 / 내가 곧 ☐이요 ☐☐요 ☐☐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7:37,38 /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진심으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2.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에 순종케 하소서.
3.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3과 생 수

| 초 점 |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

| 찬 송 |

찬송가 316장 목마른 자들아

찬송가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 본 문 | 요한복음 4:13,14

⁽¹³⁾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
르려니와 ⁽¹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
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긴 여행에 피곤해진 주님은 야곱의 우물에서 잠깐 쉬려고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우물 곁에 앉아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길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 4:13,14

‘결코 목마르지 않으리라’는 말에는 ‘영원토록’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가사의한 것 가운데 으뜸은 바로 은총입니다. 우물가에서 나눈 예수님과 한 여인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영적인 기쁨

하나님의 은총은 영적인 기쁨을 줍니다. 이 기쁨은 인간의 도덕이나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없고, 인간의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올 수도 없습니다. 제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의 공적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물질, 성공, 지식, 이 모든 것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끌어들이 수 없습니다.

은총은 하나님의 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직 그의 은총으로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의 깊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우물가의 여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고전 29 /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으로 보지 못하고 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21세기 현대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여전히 비밀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에게 물에 관한 비유를 들어서 이 비밀을 설명하셨습니다.

영원한 생수

하나님의 은총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소재는?

우물가의 여인은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자신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으며,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은총

하나님의 은총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임합니다. 겸손히 주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예수님은 생수를 주십니다.

요 10:10

만약 자존심 때문에 양 무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존심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강박하게 합니다. 결국 여러분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제발,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다 주실 참 목자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은총은 영생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고후 5:1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생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행 16:31

생수의 근원은 예수

하나님의 은총 곧 생수는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이 소망은 참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고, 더불어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요 11:25,26

예수님께 나오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보다 더 큼니다(마 12:6). 보다 더 큼니다(마 12:41). 보다 더 큼니다(마 12:42). 보다 더 큼니다(요 8:53-58).

요 3:31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요 7:37,38

십자가로 路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 21:6 /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제 사순절의 셋째 주일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와 그분이 하신 말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주님은 만물 위에 계십니다. 어떤 인간이나 천사도 그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면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한 마리의 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 곧 그분의 은총이 바로 생수라고 밝히셨습니다.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

1.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2. 주님이 주시는 은총의 샘물을 마시게 하소서.
3.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4과 두 가지 중요한 핵심

| 초점 |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라

| 찬송 |

찬송가 92장 어둠의 권세에서

찬송가 485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 본문 | 요한복음 9:39-41

⁽³⁹⁾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⁴⁰⁾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⁴¹⁾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제 있느니라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고치신 후,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 되게 하려 함이라”(39절). 예수님 곁에 있던 몇몇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도 소경인가?”(40절). 주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소경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제 있느니라”(41절). 여기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핵심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핵심1 / 주님을 믿으면 영안이 열리며 ☐사함을 받는다.

핵심2 / 주님을 믿지 않으면 영안이 닫히며 여전히 ☐가운데 산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읽고, 회당에 가고, 늘 기도했지만 정작 메시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말해보십시오.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말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교회에 가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못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자신을 살피라

만약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 15:22 / 내가 와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심판이 임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 13:13-15

만약 하나님을 보고, 듣고, 깨닫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는 눈멀고 귀먹어서 깨닫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경계해야 할 위험인물입니다.

고침 받은 소경

오늘 본문 9장 전체는 날 때부터 소경 된 사람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처음 보았을 때,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그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요 9:3 /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_____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고침을 받은 소경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소경이 고침 받은 것을 보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고침 받은 소경은 주님의 빛을 보았습니다.

요 9:5 /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이로라

자존심을 버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요 19 / 참 □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소경으로 난 자를 고치셨을 때, 자신이 세상의 빛임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은 종교적인 사람들을 향해 도전하셨지만, 이미 굳어진 그들의 마음은 주님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소경으로 난 자를 고치신 것을 보았으면서도 목이 굳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 때문에 스스로를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은 인정했지만,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각오하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현 상황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고 세상은 그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영적인 암흑 속에 가두었습니다.

※보기에서 적당한 말을 골라 써 보세요. (보기/ 십자가 쾌락 고통 예수)
만약 우리가 진실로 ☐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를 지고 자신을 부인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고통도 감수해야 합니다.

고후 13:4 /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 없는 예수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의 것을 떠나보낼 때, 우리의 자존심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우리의 영안을 가리면 결국 어둠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더 큰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 8:12 /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의 □을 얻으리라

마 6:23 /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요 3:19 /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제 사순절의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묵상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닫혀진 눈을 더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히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눈먼 것을 고침 받으십시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진심으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소서.
2.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소서.
3. 생명의 빛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5과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 초점 |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 찬송 |

찬송가 192장 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

찬송가 465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 본문 | 요한복음 11:41-44

⁽⁴¹⁾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⁴²⁾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두려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⁴³⁾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⁴⁴⁾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와 그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과 아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은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주 그곳에 들러 그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마르다(요 11:21,22) /

예수님(요 11:23) /

마르다(요 11:24) /

예수님(요 11:25,26) /

예수 그리스도는 삶과 죽음을 주관하십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특히 3년 반의 사역기간 동안 예수님은 세 사람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 마 9:23-25 / 의 딸 (막 5:21-43)

· 눅 7:11-15 / 의 아들

· 요 11:41-44 / 나사로

부활을 목격했던 무리들 대부분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동참했습니다. 심지어 주님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눈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건만,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께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오늘날 예수님께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가' 라는 주제를 놓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 14:6 /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이요 ☐☐요 ☐☐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자신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과 행동을 분석하고, 논의하고, 의심하면서부터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믿음의 고백을 해 보십시오.

-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을 진실로 믿습니까?
-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실 것을 믿습니까?
-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믿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우리의 논리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추론으로는 성경의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지혜나 노력만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모든 내용을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믿음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는 참으로 신성한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에 앞서 기도하셨습니다.

요 11:41,42

예수님의 기도 1 / 하나님의 을 위하여 기도하심

예수님의 기도 2 / 신자들에게 필요한 의 확신을 위하여 기도하심

주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죽음도 능히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기도예 응답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은 그것을 믿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신자들이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신자의 기도

신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예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 16:24 /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 14:14 /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내가 시행하리라

요 15:7 /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요 11:43

예수님의 말씀에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는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요 11:44

예수님의 분명하고 단순한 말씀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요 5:26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재림하실 때 주님은 모든 신자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실 것입니다.

요 10:3 /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을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요 10:14 /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요 10:27 / 내 양은 내 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을 나사로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기에 문입니다.

십자가로 路

예수님은 충성된 믿음의 종을 찾으십니다.

마 25:21 / 잘 하였도다 착하고 ☐☐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찌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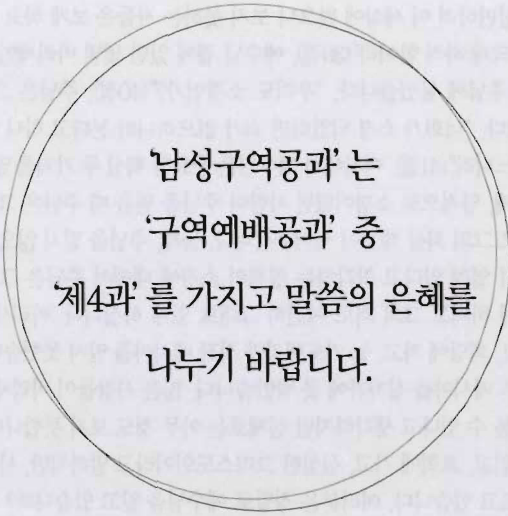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신자들의 믿음을 위해서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사순절의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게 하소서.
2. 자신의 방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소서.
3. 사순절 기간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공과



‘남성구역공과’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4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두 가지 중요한 핵심

(요 9:39-41)

두 가지 핵심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후,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 되게 하려 함이라”(39절). 예수님 곁에 있던 몇몇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도 소경인가?”(40절). 주님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소경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제 있느니라”(41절). 여기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핵심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영적으로 소경이었던 사람이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둘째,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 자신의 영안이 열려 있다고 착각하는 영적인 소경에 대해서 주님은 그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죄도 여전히 그대로 있게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읽고, 회당에 가고, 늘 기도했지만 정작 메시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교회에 가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통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살피라

만약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와서 저회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요 15:22). 예수님

의 사역과 함께 심판이 임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13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 13:14,15). 만약 주님을 보고, 듣고, 깨닫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는 눈멀고 귀먹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경계해야 할 위험인물입니다.

고침 받은 소경

오늘 본문 9장 전체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처음 보았을 때 제자들은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그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 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요 9:3).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고 심오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셨습니다. 소경이 고침 받은 사건은 대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소경으로 난 자가 눈을 뜨게 된 일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일에 대해 추궁했을 때 소경이었던 사람은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요 9:5). 바리새인들은 소경이 고침 받은 것을 보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고침 받은 소경은 주님의 빛을 보았습니다.

자존심을 버리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요 1:9). 이 빛은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눈이 가려져 이 빛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소경으로 난 자를 고치셨을 때 자신이 세상의 빛임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냈습니다. 주님은 종교적인 사람들을 향해 도전하셨지만 이미 마음이 굳어진 그들은 주님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소경으로 난 자를 고치신 것을 보았으면서도 목이 굳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은 스스로에게 죄인이 아니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은 인정했지만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각오하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현 상황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 뻔했습니다. 로마인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명성은 추락하게 될 것이고, 이와 함께 정치적인 권력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영리했고 사회에서 출세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고 세상은 그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이 스스로를 암흑 속에 가두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개인적인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

다. 예수님을 장사지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고통도 감수해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바로 고통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높은 지위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든 목사이든 그 사람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들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을 갈보리산으로 끌고가 십자가에 못박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의 것을 떠나보낼 때 여러분의 자존심은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십자가와 함께 고통도 짊어졌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길 데 없는 기쁨에 견준다면 세상적인 손해쯤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8:12). 자존심이 여러분의 영안을 가리면 어둠밖에 남지 않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마 6:23).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요 3:19). 사순절의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빛을 사랑하게 되고 어둠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눈먼 것을 고침 받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2006년 3월호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매일묵상 : 장 훈(1-7일), 최종철(8-15일), 이경준(16-23일), 윤수일(24-31일) 목사

구역예배공과 : 양재웅 목사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